

## “油價自律化는 신중하게”

### 全대통령, 動資部보고 받고 지시

全斗煥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油價자율화의 추진시기와 방법은 성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경쟁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좀 더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崔東奎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油價자율화 시행 등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는 原油를 1백%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油價의 자유경쟁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 『언젠가는 자율화해야겠지만, 경쟁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油價자율화의 추진시기나 방법은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崔장관은 올해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정부는 油價를 단계적으로 자율화, 우선 1단계로 경쟁여지가 있는 휘발유, LPG, 등유, 경유, 나프타 등의 油種을 대상으로 수도권 및 嶺·湖南지역의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등 중간유통가격부터 가격고시제를 폐지하고, 점차 대상油種 및 실시지역을 확대시켜 석유제품의 공장도가격까지 가격고시제를 폐지, 자율관리 시키겠다고 보고했다.

崔장관은 정유사간의 경쟁여건조성을 위해 비경쟁적인 인 허가 제도를 발굴·보완하는 한편, 소요원유의 20% 범위안에서 현물 시장도입을 자유화시키겠다고 말했다.

崔장관은 또한 低硫黃油 공급을 확대, 종전에 京仁, 蔚山지역에 공급해 오던 저유황 B-C油의 공급대상지역을 올해에는 釜山, 大邱지역까지 확대하고 공급비율도 83년의 33%에서 올해에는 39%로 늘리는 한편, 京仁, 영남지역에 공급해오던 저유황 輕油 공급대상지역을 湖南, 충청지방까지 확대하고 공급비율도 83년의 35%에서 올해에는 43%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崔장관은 LPG공급을 계속 확대, 올해에는 지난 해보다 16%가 증가한 1백 3만 5천톤의 LPG를 공급하고 이중 55만 5천톤은 국내생산으로, 48만톤은 수입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崔장관은 또한 경질유와 중질유의 수요구조는 83년의 52%, 48%에서 오는 91년에는 73%, 27%로 輕質化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질유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중질유분해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麗水-서울(466km), 蔚山-大田(276km) 간의 장거리 송유관건설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昨年 국제收支개선 값싼 原油도입이 기여

지난 해 우리 나라의 국제수지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주로 국제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원유도입비율절감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해 임가공수출을 제외한 내수용 원유도입량은 1억 7천 9백 30만 배럴로 82년 대비 90만 배럴 늘었으나, 원유도입대금은 53억 8천 만 달러로 전년보다 7억 달러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 해 국제수지 경상적자는 16억 1천 9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10억 3천만 달러 감소했다.

따라서 이같은 경상수지 개선은 원유도입비용이 7억 달러나 절감된 데 결정적으로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도입비용이 이처럼 절감된 것은 작년 3월 국제원유가 인하와 정유회사들의 현물시장을 통한 값싼 원유도입으로 원유도입 단가가 82년 배럴당 평균 34.1달러(운임포함가격)에서 83년 30달러로 낮아진 데 기인된 것이다.

또한 정유회사들이 장기계약이외에 현물시장에서 그때그때 公式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도입한 현물원유가 82년 8백 39만 배럴에서 작년에는 3천 30만 배럴로 급증, 원유비율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임가공 수출을 포함한 전체 원유도입량중 현물도입량의 비중은 82년 4.7%에서 작년에는 15.5%로 높아졌다.

한편 동자부는 올해 원유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수입비용을 작년보다 3억달러 많은 70억달러로 잡고 있다.

## 家庭燃料, 油類·가스화 都市, 住宅연료변화

우리 나라의 주택사용연료로 연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유류와 가스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1983년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주택사용연료구성비는 난방용의 경우, 연탄은 농어촌지역으로의 확산보급으로 전국적으로는 80년의 69.5%에서 83년에는 74.7%로 5.2%포인트 증가했으나, 도시지역에서는 80년의 92.9%에서 83년에는 91.6%로 오히려 1.3%포인트가 감소했다.

또 유류는 전국적으로 80년의 2.5%에서 83년에는 3.9%로 1.4%포인트 증가했으며,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80년의 4.1%에서 83년에는 6.2%로 2.1%포인트가 증가했다.

한편 취사용의 경우, 연탄의 퇴조와 유류 및 가스의 증가추세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연탄은 80년의 62.7%에서 83년에는 42.4%로 20.3%포인트 감소했으며,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80년의 78.6%에서 83년에는 43.4%로 무려 35.2%포인트나 줄어들었다.

또 유류와 가스는 80년의 5.6%, 5.0%에서 83년에는 21.7%, 14.9%로 각각 16.1%포인트, 9.9%포인트가 증가했으며, 특히

## 5次 5個年 에너지需給計劃 수정

- 總에너지需要증가율 7.0→5.2%
- 石油需要증가율 4.8→3.0%
- 有煙炭需要증가율 13.4→15.3%

정부는 5차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수정의 일환으로 이 기간 중의 연평균 총에너지수요증가율을 당초의 7%에서 5.2%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1월 16일 동력자원부가 확정 발표한 5차계획 에너지부문 수정계획 및 84년 수급계획에 따르면, 石油의 수요증가율은 당초의 4.8%에서 3.0%로, 무연탄은 2.8%에서 0.8%로, 電力은 11.1%에서 9.9%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대신 유연탄의 수요증가율은 당초 연평균 13.4%에서 15.3%로 상향조정했다.

이로써 總에너지중 石油비중은 81년 58.4%에서 86년 50.9%로, 무연탄비중은 22.4%에서 17.4%로 낮아지는 반면에 유연탄 비중은 81년 10.7%에서 86년 16.8%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유도입량은 지난 해의 1억 8천 8백 25만 1천 배럴에서 86년에는 약 2억 9백 95만 7천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같은 수요증가율조정과 함께 에너지부문 투자계획도 재조정, 당초 계획기간중 하루 21만 배럴의 정유시설을 확충하려던 것을 하루 6만 배럴만 증설키로 했으며, 전력부문에서도 당초 85~86년에 완공키로 돼있던 원자력 5~8호기의 완공시기를 6~12개월간 연기시키고, 9, 10호기는 89년에 완공시키며, 당초 84년에 착공키로 했던 원자력 11, 12호기는 86년 이후 착공토록 연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에너지수급계획을 확정, 총에너지수요는 지난 해에 비해 6% 증가한 石油환산 5천 2백 49만 4천 톤으로 잡고, 이중 石油는 2.5%가 늘어난 1억 9천 7백 44만 배럴, 무연탄은 2.8%가 늘어난 2천 1백 90만 8천 톤, 그리고 유연탄은 29%가 늘어난 1천 2백 10만 톤으로 각각 잡았다.

도시지역에서는 80년의 9.3%, 8.8%에서 83년에는 30.7%, 22.6%로 각각 21.4%포인트, 13.8%포인트가 늘어나 주택사용연료의 유류·가스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주택사용연료의 유류·

가스화추세는 석유가 他에너지源에 비해 열효율이 높고, 취급이 간편하다는 利點과 최근 대도시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의 아파트의 量的 확대와 취사연료의 유류·가스화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 사우디훈련생 교육 마쳐 油公, 제 3 진 32명수료식

油公은 지난 12월 22일 蔚山 공장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페트로민(국영석유회사)의 위탁훈련생 제 3 진 32명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金恒德 수석부사장을 비롯하여 徐孝重 기획 및 개발담당 부사장, 尹大郁 공장장과 주한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의 모하메드 야페이 1 등서기관, 페트로민 훈련담당자 바다 알 세베이서등 관계인사 다수가 참석했다.

油公의 페트로민 훈련생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은 지난 81년 9월 27일에 시작된 이래 83년 9월 24일 제 1 진 44명, 11월 11일 제 2 진 28명이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데 이어 지난 12월 22일 제 3 진 32명이 수료식을 가짐으로써 총 1백 4명에 대한 2년 3개월의 전과정을 끝냈다.

### 油公, 課長級 인사이동 4명 승진 및 전보

油公은 지난 12월 26일자로 李載元 석유화학생산부생산관리과장을 NAC 운전요원과장으로 전보하는 등 과장급 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석유화학생산부NAC 운전요원과장 李載元 (석유화학생산부생산관리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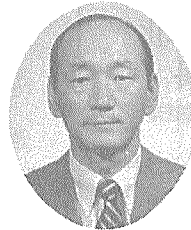
▲석유화학생산부아로마틱 1 과장 南右鉉 (페트로민기능공훈련팀 선임실기교관과장)

### 럭키金星그룹副會長에 具平會湖油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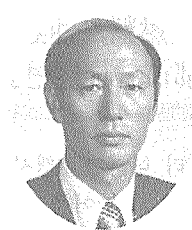
— 韓聖甲·卞圭七부사장은 社長승진 —



具平會 부회장



韓聖甲 사장



卞圭七 사장

럭키金星그룹(회장·具滋暻)은 지난 1월 23일 許準九 그룹 부회장을 金星電線회장겸 그룹통합부회장으로, 具平會 湖南精油社長을 그룹부회장겸 同社사장으로 각각 승진시키는 등 모두 13명의 그룹최고경영진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럭키金星그룹은 또한 그룹기획조정실사장에 卞圭七 기획조정실 부사장, 럭키컨테이너탈카본사장에 韓聖甲 湖南精油 부사장을 각각 승진시켰다.

럭키金星그룹측은 이번 인사의 배경이 회장단을 보강하고, 그룹의 국제화를 꾀하며, 원로경영인과 공채 1기를 상임고문및 최고경영인으로 발탁,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시설확장사업부프로젝트 담당과장 高영근 (페트로민기능공훈련팀 학과교관과장)

▲석유화학생산부생산관리과장 方엽성 (석유화학생산부아로마틱 1 과장)

### 語學시청각교육실 개관 雙龍, 外國어교육에 박차

雙龍精油는 사원들의 외국어교육을 위해 지난 1월 12일 본사에서 시청각교육실을 열었다.

새로 마련된 시청각교육실은 주조정기와 개인용 헤드폰이 설치된 14석의 개인용 책상과 VT

R, TV를 비롯한 사내방송시설 등 어학교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雙龍精油는 시청각교실 개관에 따라 제 1차로 지난 1월 12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본사 과장급 이상 간부급사원 1백명에 대해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정별로는 영어회화반, 생활영어반, 일본어초급반, 일본어중급반등 4개 과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정규과정과는 별도로 아침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사내방송을 통해 영어회화가 방송되며, 토요일 오후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외국영화를 감상하는 스크린영어반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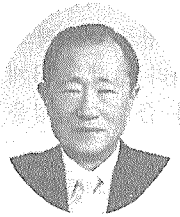
雙龍精油의 語學시정각교육실

### 독립기념관誠金기탁 極東, 2 차분 2 천만원

極東石油의 張洪宣社長은 지난 1월 13일 독립기념관건립성금 2 차분으로 2 천만원을 독립기념관건립 추진위원회에 기탁했다.

極東石油은 82년 11월에도 독립기념관건립성금으로 2 천만원을 朝鮮日報에 기탁한 바 있다.

### 李漢基 前 감사원장 極東石油고문 취임



極東石油은 최근 李漢基 前 감사원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李고문약력)

- ▲東京帝大法学部 卒業
- ▲서울大法大 학장
- ▲監査院長
- ▲學術院會員(現)

### 國軍장병위문품 전달 極東, 지난 1月 14日

極東石油 임직원 25명은 지난 1월 14일 창설부대인 육군○○부대를 방문, 국토방위에 임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위문하고 23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現物市場활용, 低價原油도입에 힘쓸터”

#### — 劉時鍾부회장 KBS-TV 인터뷰 —



劉時鍾 大韓석유협회부회장은 精油業界는 現物市場을 적극 활용, 國內油價 안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劉부회장은 지난 2월 8일밤 KBS-TV(1) 「오늘의 경제」프로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유업계는 基準原油價보다 싼 해외現物市場을 통해 보다 많은 原油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값싼 기름을 공급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劉부회장은 『올해 국제석유시장은 우선 需給面에서 볼 때, 세계경기의 회복으로 석유수요가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은 產油國의 產油量이 늘어나고 있고, 또 OPEC가 잉여생산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발사태가 없는 한, 올해 석유수급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劉부회장은 또한 『가격면에서는 금년 봄에 공급과잉으로 基準原油價格이 다시 인하되리라는 견해도 일부 있으나, 세계경기회복에 따라 석유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 현재 세계석유재고가 작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 『현재 배럴당 29달러로 되어 있는 기준원유가격수준은 올해에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劉부회장은 끝으로 『이러한 油價전망에 비추어 볼 때, 올해에 우리 소비자들이 기름값이 다시 올라 家計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일단 안심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雙龍精油, 學資金制度 대폭 확충

### 中高生 100%, 大學生 90%까지

雙龍精油는 사원복지의 폭을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부터 사원자녀 학자금제도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雙龍精油의 사원자녀 학자금확충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고생 2 자녀의 경우, 직급순으로 40%에서 60%까지 사우회 학자금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연 2 자녀로 넓혀 100% 까지 전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사우자녀가 대학생인 경우는 직급에 따라 1, 2급 사원자녀는 70%, 3, 4급 사원자녀는 80%, 5급 이하 사원자녀는 90%까지 지급키로 했다.

李承源 雙龍精油사장은 『우리 회사를 대한민국 제 1의 복지 회사로 발전시키고, 회사의 이익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실여건이 미흡하여 이러한 의지가 한꺼번에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사원복지정책의 폭을 넓혀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雙龍의 사원자녀 학자금지급은 학자금기금 1억 5천 만원을 조성, 81년부터 매년 학자금총액의 53%를 지급해 왔는데, 이번 전면개선에 따라 수혜범위의 대폭확충은 물론, 지급액도 83년의 2천 2백만원 규모에서 올해는 6천 7백여만원으로 늘어나 전체사원자녀 학자금지급비율은 9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지급제도개선 비교표

| 구 분   |   | 현 행                     | 개 선  |
|-------|---|-------------------------|--|
| 지 급 륜 | 1·2급 사원 : 40%<br>3·4급 사원 : 50%<br>5급이하 사원 : 60% | 중고생                     | 100%   |
|       |   | 전문/대학생                  | 1·2급사원 : 70%<br>3·4급사원 : 80%<br>5급이하사원 : 90% |
| 수혜자녀수 |   | 2자녀 이내로 제한              | 전 자녀로 확대<br>(연 2자녀씩 수혜)                      |
| 지급 기준 | 중고생   | 고지서금액(입학금포함)            | 좌 등  |
|       | 전문/대학생  | 국립대학등록금 금액(입학금 포함)      |  |
| 학자금재원 |   | 사우회 학자금기금 1억 5천만원의 이자수익 | 회사가 직접 지급(사우회 학자금 기금은 회사에 반납)                |

## 대륙붕11개孔 石油試錐 油開公, 6鉞區 등 독자探査

大韓石油開發公社는 지난 2월 10일 국내대륙붕 石油開發사업계획을 확정, 오는 90년까지 石油부존가능성이 높은 2, 4, 5, 6鉞區에 대한 정밀탐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한 후 외국석유회사와 50대50의 비율로 11개孔을 시추키로 했다.

石油開發公社는 이에 따라 제 4鉞區 탐사기간을 86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제의해 온 美國의 자팩스社와 재계약을 체결,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벌이고 6鉞區에 대한 종합해석·평가를 올 상반기중에 완료, 「자팩스」, 「산타페」, 「마라톤」社 등 3개 외국석유회사와 合作 가능성을 타진키로 했다.

또 금년중에 제 5鉞區의 기존 조사자료를 재분석, 유망지역을 선정, 탄성파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 大邱도시가스, 올해완공 8천세대 공급계획

大成産業계열의 大邱都市가스는 올해안에 50억원을 투자, 大邱 시내 8천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시킬 예정이다.

大邱 서남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이 회사는 오는 90년까지 가스공급대상을 10만 세대로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1백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大成産業그룹은 현재 서울부  
도가스를 통해 서울지역 7만세  
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 「세계 LPG 長期展望」 石油協會서 구입·배포

대한석유협회는 LPG需給安定  
對策을 위해 美國의 Purvin &  
Gertz社가 연구·분석한 「世界  
LPG産業 長期展望」 보고서를  
구입, 지난 1月 회원사 등에 배  
포하는 한편, 來韓한 同社 責任  
研究員 2명과 함께 LPG事業전  
반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권위있는 國際技術用役會社인  
Purvin & Gertz社의 同연구보고  
서는 1995年까지의 LPG産業에  
대한 ① 지역별 시장분석, ② 수  
송능력 및 受入기지 등 공급계획,  
③ 국제가격 및 시장개발전망, ④  
수급전망 등으로 구성되었다. (2  
권 1권에 3,200달러)

同연구에 참여한 2명의 責任  
研究員은 2月23日 石油協會 企  
副部長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중대  
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적어도  
1995년까지는 世界LPG産業의  
순조로운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  
을 原油生産 및 정유産業과 관  
련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 石油가스流通協會 총회 鄭在文회장 유임

韓國石油가스流通協會는 지난  
2월 10일 파레스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鄭在文회장(大洋産  
業대표)을 유임시켰다.

이날 총회는 또한 총6억5천  
만원 규모의 8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 協會人事

□ 採用

▲企副部長企副課 金明煥  
(수습사원) (2. 20)

## □ 消費国動向 □

# IEA, 美國에 SPR活用方案 調査團 派遣

IEA는 장차 石油波動이 발생될 경우 美國  
이 취할 石油政策을 확인하기 위해 美國과 그  
밖에 다른 4개 회원국에 調査團을 파견했다고  
OGN/wire紙가 지난 6일 보도했다.

同紙에 따르면 IEA 調査團들은 파견대상국  
政府에 대해 첫째, 非常備蓄油를 언제부터 방  
출할 것이며, 둘째, 가격 및 할당량을 비롯하  
여 非常備蓄油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며, 셋째,  
民間石油會社들을 政府政策에 따르게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넷째, 어떤 行政部署가 政府  
의 권한을 대행할 것인지 등에 관해 질의를 할  
예정이다.

외교소식통들은 현재 대부분의 유럽 國家들이  
장차 石油波動의 극복은 美國이 戰略石油備  
蓄(SPR)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스웨덴, 이탈리아,  
西獨, 네델란드 등 다른 4개 회원국에 파견된  
調査團은 美國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숨기려

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IEA의 이같은 調査團 派遣으로 美行政府는  
그동안 불확실했던 戰略石油備蓄의 운용방법  
에 관한 분명한 政策을 제시해야만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美國은 세계적인 石油供給中斷事態가  
발생될 경우 戰略石油備蓄의 효과적인 방출을  
위해 西獨 및 日本과 이에 관한 協定을 체결  
해야만 할 것이라고 워싱턴所在 Energy Secu-  
rity Analysis의 Edward Krapels會長이 주장  
했다. 그는 세계를 石油波動에 대한 대응책으  
로 첫째 美國, 西獨, 日本이 戰略石油備蓄물  
량을 공동협정하에 즉각적으로 동시 방출하며,  
둘째 다른 國家들도 최저비축물량을 90일분  
에서 85일분으로 감소시키며, 셋째 모든 消費  
國政府들이 그들의 石油會社들에 대해 石油波動  
의 초기에 在庫油를 증강시키는 행동을 삼가하  
도록 지시할 것을 제시했다.